

광주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본격화

동북상수원 맛·냄새 유발물질 등 수질 악화 대응 내년까지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노후관 교체

광주시가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공사과 시운전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7일 오후 용연정수장에서 이용섭 시장, 조석호·정순애 시의회 부의장, 최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도정수처리시설 현판식을 가졌다.

이 시설은 응집, 침전, 여과 등 일반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오존 투입시설과 활성탄흡착지(일명 숲)를 활용한 정수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정수시설이다.

일반정수처리 과정에서 제거하기 어려운 흙냄새(지오스민·Geosmin), 곰팡이 냄새(2-MIB) 등에 대해 살균

력이 뛰어난 오존과 접촉, 산화작용을 일으켜 물 속에 있는 큰 유기물을 작은 유기물로 분해하고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한 후 활성탄을 활용해 유기물 찌꺼기 흡착해냄으로써 맛·냄새 유발 물질을 완전 제거한다.

총사업비 500억 원이 들어간 이 시설은 2017년 5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며, 하루 3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규모다.

이 시설은 4개월간 자체 시험가동을 마치고, 지난 5일부터 6만을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하루 29만톤의 고품질 수돗물을 광주 동구, 북구 일원에 공급하고 있다. 전국 492개 정수장 중 50곳에서 운영중이다.

시는 시설 가동을 계기로 동북호 상수원 수질 악화 등 급격한 변화에도



광주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사진=광주시 제공)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용연정수장 29만, 덕남정수장 20만 등 1일 49만톤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민

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수돗물 생산·공급관리 전반에 전문성을 높여 시민들이 수돗물 혁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고고챌린지’ 동참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최소화 실천 운동 전개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된 ‘고고챌린지’는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2가지 실천에 대한 약속을 ‘고고 운동’에 맞춰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번 고고챌린지 참여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관)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진행됐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공식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대화용품 사용 늘리고!’를 약속했다.

진흥원은 고고챌린지의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피켓이나 인쇄물 대신 진흥원 내에 구축된 원격 화상회의실을 활용했으며, 진흥원에서 제작한 친환경 리유저블컵과 에코백을 소품으로 활용했다.

최은희기자

광주문화예술회관, ‘숨’展 작품전 개최

내일부터 5월 23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대인들에게 일상을 성찰하고 휴식과 여유를 선사하고자 <숨>展을 29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지원 공모전으로 선정된 www.현대

미술가회원들이 참여하여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 ‘여유’를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회화 및 설치 작품 23점이 출품되며, 전시에서는 기억, 행복, 꿈, 숨(휴식) 4가지 키워드로 제작된 서양화, 동양화, 판화, 공예,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한국학교환경위생협, 무궁화 살리기 운동

“나라꽃인 무궁화, 국격에 맞는 관리 필요”

무궁화는 나라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다. 이제는 이 무궁화도 격에 맞는 식물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운동이 일고 있다.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회장 황선월)와 파바월드코리아, 사랑의녹색운동본부, 학교환경위생연구회, 전국지방자치뉴스는 ‘교육과 환경, 그리고 언론단체가 합쳐서 무궁화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를 정점으로 관련 단체는 대한민국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와 나라꽃인 무궁화를 함께 식재해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국기계양대 등 주변에 무궁화를 심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무궁화는 나라꽃이면서도 부실한 식재와 관리로 생육이 원활치 못해 꽃도 피지 않고 생명유지에 급급해 나라꽃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황선월 회장은 “무궁화는 건국 이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온 나라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피는 꽃이다.

애국가에도 나오지 않는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는 무궁화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관리는 소홀했다”며 “이제는 나라꽃인 무궁화가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나라꽃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며 각 기관에 속해있는 부지에 무궁화동산 만들기, 무궁화 확대 식재관리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로 무궁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는 교육 공공 및 민간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친환경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이다. 지난 2009년 1월 교육부 제125호로 인가를 받아, 교육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제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이번 사업으로 우리 민족의 얼인 무궁화가 국가를 상징하는 나라꽃 위상에 맞게 확대 식재해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격’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조광제기자

동구 충장동, 마을비전수립사업 진행 ‘가속화’

광주 동구 충장동 주민자치회(회장 여근수)는 ‘2021 마을비전수립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계획추진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을비전수립’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자치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및 자치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1년간 추진되는 마을비전 과정은 ▲마을계획추진단 구성 ▲마을특성과 주민욕구 파악을 위한 마을자원조사 ▲마을계획 실천단 운영 ▲마을의제 발굴 및 마을비전학교 운영 ▲마을축제 연계한 마을총회 개최 ▲마을비전 선포식 등 체계적인 운영 등이다.

서구 ‘재난의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광주 서구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재난의 인문학’을 주제로 관내 도시관에서 다채로운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공모 사업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재난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은 오는 5월12일부터 매주 수요일 8차례에 걸쳐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국립 5·18 민주묘지 일원에서 현장답사도 한다.

남구 “종합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하세요”

광주 남구는 27일 ‘납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센터’를 오는 5월 1일부터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청 지하 1층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도움센터를 마련, 민원인이 세무서와 구청 중 한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모두채움 대상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는 직원들이 신고 절차를 돕기로 했으며, 그 외 방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및 직접 신고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북구, ‘마음건강 오감키트’ 제작...장애인 심신 안정

광주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의 심신 안정을 위해 1인 가구 재가 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오감키트’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음건강 오감키트는 복귀관, 공공시설 등 이용 제한으로 집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등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 오감키트로 제작해 매출 증진과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스마일공(촉각), 아로마베갯속(후각), 새송이버섯 및 쿠키세트(미각), 우드스피커(청각), 마스크, 손세정제 등으로 구성된 오감키트는 다음 달 중순까지 동행정복지지센터를 통해 장애인 가구에 전달된다.

광산구, 시민행복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광주 광산구가 올해 시민행복동아리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진행된 ‘2021. 시민행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에는 총 79개의 동아리가 신청하였다.

광산구는 시민행복동아리 심사위원회 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21개 동아리를 최종 선정하고, 동아리당 80만~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행복동아리 지원사업은 같은 취향과 취미를 가진 5인 이상의 광산구 시민들의 모임이나 공동체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좋은 관계 형성으로 행복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임행택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넘어 국민을 위한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1년 단 158 특별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민보 (400220-1622110)
최 후 주 소 : 광주 광산구 평동월곡길 42(동산동)

위 망 김민보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1년 4월 28일

공 고 인 : 김병식, 김병일, 김병순, 김태식.
주 소 : 광주 광산구 평동월곡길 42(동산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1년 4월 16일
공 고 기 간 : 2021. 4. 28 ~ 2021. 6. 28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칙의 안전 보강책임을 강화되었습니다.
- 직접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 710-8700
Fax 062) 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